지역 무역수지 10억6천800만달러 흑자

'8월 수출입동향' 전년比 수출 광주 4.1%·전남 54.5% ↑
반도체·가전·기계류가 상승 견인…수송장비는 줄어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 10억6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7% 증가한 51억2천200만달러, 수입은 69.8% 증가한 40억5천4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0억6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42.6% 증가했고 수입은 43.5% 증가해 무역수지는 98억3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12억600만달러, 수입은 34.3% 증가한 7억9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9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반도체(17.4%), 가전제품(6.1%), 기계류(5.2%), 타이어(48.6%)가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14.9%)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3.3%), 가전제품(31.0%), 고무(239.7%), 화공품(16.5%)이 증가했으며 기계류(8.6%)는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4.5% 증가한 39억1천600만달러, 수입은 79.8% 증가한 33억4천5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7천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74.1%), 석유제품(71.0%), 철강제품(189.1%), 기계류(1.3%) 등이 증가했으며 수송장비(45.6%)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64.7%), 석탄(59.6%), 석유제품(149.8%, 철광(97.8%)·화공품(99.7%) 등이 모두 증가했다. /박은성 기자

현대인프라솔루션 대불산단 공장 가동

현대인프라솔루션이 영암 대불산단에 공장을 마련,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현대인프라솔루션은 15일 "최근 윤성일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가 함께 한 가운데 안전 기원제와 생산 착수를 의미하는 아크용접 시연회를 개최하고 대불공장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고 밝혔다.

현대인프라솔루션 대불공장은 5천평의 부지에 무빙쉘터를 비롯, 600t 크롤라 크레인 등 각종 크레인과 기타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골리앗크레인이나 항만용 크레인, JIB크레인 등의 생산이 가능하고 강재 처리량은 연간 7천t에 달한다.

이 곳에서는 본사에서 설계한 각종 크레인의 블록을 생산하고 설치 작업은 국내외 현장에서 진행된다. 현재 인도 조선소에 납품할 600t 골리앗크레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베트남 조선소용 700t 골리앗크레인을 생산할 계획이다. /영암=이봉영 기자

"취약세대에 명절음식 배달갑니다" 15일 광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회원과 동캠프지기들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전달할 명절 음식을 포장하고 있다.

광주·전남 8월 취업자 '단기 일자리' 위주 증가

호남통계청 '8월 고용동향'…전년比 2만2천명 ↑·고용질은 하락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만2천명 증가했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줄고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만 늘어 고용의 질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취업자 수는 75만1천명, 전남은 100만명 등 175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 4천명·전남 1만8천명 등 2만2천명이 증가했다.

고용률(15세 이상)도 광주 58.7%·전남 65.6%로,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p)·1.1%포인트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광주의 경우 전년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3천명(8.0%), 건설업 5천명(7.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천명(6.3%) 각각 증가한 반면 광공업 1만5천명(-13.5%), 농림어업 4천명(-27.1%) 감소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임금 근로자는 7천명(1.3%) 증가한 57만6천명으로, 상용 근로자는 1천명(-0.2%) 감소했으나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각각 2천명(1.8%), 6천명(17.1%) 증가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만2천명(39.6%) 증가한 25만3천명이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만7천명(-10.7%) 감소한 48만명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임금 근로자보다 단기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는 1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4천명(-17.9%) 감소했고 실업률은 2.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지역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만3천명(10.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천명(7.2%), 농림어업 1만2천명(5.5%) 각각 증가했으나 광공업 1만4천명(-11.9%), 건설업 8천명(-9.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2천명(-6.5%) 각각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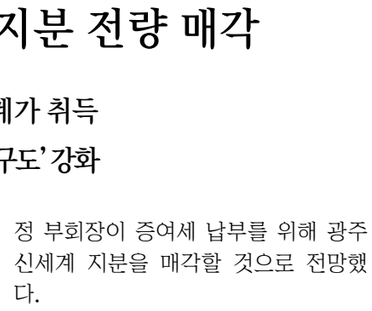
임금 근로자는 4천명(0.6%) 증가한 60만6천명으로, 이 중 임시 근로자는 7천명(3.9%) 증가했으나 일용 근로자는 3천명(-7.7%)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만1천명(21.9%) 증가한 28만5천명,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만8천명(-3.9%) 감소한 69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명(5.6%) 증가했고 실업률은 1.3%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기수희 기자

현대차 '2021 롱기스트 런 in 광주' 캠페인
"깨끗한 세상을 위해 올해도 달린다"

내달 2-3일 ACC서 A·B코스



"깨끗한 세상을 위해 올해도 달립니다" 광주에서 달리기를 통해 환경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2021 롱기스트 런'이 열린다.

현대자동차는 15일 오는 10월 2-3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1 롱기스트 런 in 광주'를 A코스(광주천 수변 코스)와 B코스(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미션 레이스)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롱기스트 런은 현대차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참가자가 전용 앱을 다운로드한 후 달리기와 친환경 미션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레이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롱기스트 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의 GPS 기능과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스마트 기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장치)을 활용해 자동으로 완주가 인증된다.

참가 희망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5천원이다.

참가비 전액은 무등산 국립공원 환경보호 사업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공동 기부금으로 전달돼 식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 비누 메달, 유리 빨대 등으로 구성된 '러닝 패키지'가 제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해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인 만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기수희 기자

정용진,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 매각

"증여세 재원 마련 차원"…신세계가 취득
'정용진 이마트·정유경 백화점 경영구도' 강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자신의 광주신세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신세계는 정 부회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 주식 83만3천330주(52.08%)를 약 2천285억원에 취득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의 광주신세계 지분은 기존 10.42%에서 62.5%로 늘어나며 최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는 정 부회장이 증여세 재원 마련과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정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각각 이마트 지분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남매는 총 2천962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증여 발표 후 유통업계에선 정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광주신세계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정 부회장이 이마트를, 정 총괄사장은 백화점을 맡는 경영 구도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신세계는 광주·호남지역을 상권으로 백화점을 운영하는 별도 법인으로, 1995년 광주신세계백화점으로 출발해 2006년 광주 이마트를 함께 운영하며 사명을 광주신세계로 바꿨다.

마트 사업 부문은 2018년 12월에 이마트에 다시 양도했다.

매출액 대부분이 백화점에서 발생해 사실상 정 총괄사장 소관이었으나 정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지분 매입에 따른 연결 회계 편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수희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뽁뽁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매일 매일 활기찬
여기는 송정매일시장입니다!
송정매일시장은...
선암 나루 근처의 선암장을 모태로 하는 송정장은 1920년대까지 광주전체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약 5천 여 명의 주민들이 오가며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송정5일장이 열리는 장터의 중심에 자리하며 상설시장의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광, 담양, 함평, 나주, 화순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송정매일시장은 광주송정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인근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과 서남해안에서 온 싱싱한 해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농산물(미곡, 채소, 고추), 축산물(오리, 닭), 수산물(생선, 건어물), 공산품(철물, 그릇, 식료품, 의류, 신발), 음식점(국밥)등이 있다.
이용시간 07:00 ~ 19:00
휴일 첫째주/셋째주 일요일 (단, 5일장날 3/8/13/18/23/28일은 개장)
주차시설 212면 유료(15분당 200원, 시장 이용시 50% 할인)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광산구 문의 : 062)650-2099